

아우구스티누스의 심리적 삼위일체론의 종교교육적 의의

정 현 숙

수원대학교

〈요 약〉

삼위일체론의 초기 형성 과정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이전 동방교회 캅파도키아 교부들의 기여와 니케아 공의회에서의 이단 논쟁을 살펴보고 서방교회 아우구스티누스 삼위일체론의 교리사적 의의를 개괄 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술 『삼위일체론』 내용을 요약하고, 이 책의 후반부에 속하는 인간의 심리구조와 삼위일체의 흔적을 찾는 기본 방향의 설정을 검토했다. 그의 삼위일체론은 인식을 구성하는 주체, 객체, 행위의 3요소에 인간의 심리구조를 결합하여 4 단계에 걸쳐 상승 발전한다. 외적 인간의 감각적 인식에 있는 3중 구조와 감각대상이 마음에 도입되어 기억 속에서 투영된 3중 구조가 각각 낮은 두 단계에 속한다. 다음 내적 인간의 지식에서 3단계의 3중 구조를 찾고, 최고 단계의 삼위일체의 모형을 하느님의 지혜에 관한 기억, 이해력, 의지에서 찾게 된다. 본 논문은 인식론적 3중 구조의 관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을 파악하였고, 이를 다시 교수학습 이론에 적용하였다. 다음에 더 자세하게 종교교육학과 하느님 신앙교육 관점에서 삼위일체와 인식론적 모형의 의의를 논했다.

핵심 주제어: 삼위일체론, 성부, 성자, 성령, 기억, 이해력, 의지, 종교교육

I. 서 론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아우구스티누스를 그리스도교 신학의 정립자로 높이 평가했으며, 서구 철학이 플라톤에 대한 일련의 각주이듯이 그리스도교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각주라고 하였다. 그의 사상은 중세의 안셀름(Anselm)과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물론 종교 개혁기의 루터와 칼빈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히포(Hippo)의 주교로서

사목활동을 하면서도 수 많은 저술을 집필하였다. 그의 대표 저술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고백록」으로서 그 자신의 신앙적 편력에 대한 자서전적 회고록이라 하겠다. 신학적 이론에 관한 명저로는 일반적으로 「신국론」과 「삼위일체론」이 꼽힌다. 이 세권의 신학적 고전은 각각 개인과 신앙, 교회와 신앙, 하느님과 신앙이란 세 측면의 그리스도교 신학 교리서로서 3부작을 이룬다. 이 중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천재성과 독창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은 「삼위일체론」으로 알려져 있다.

「삼위일체론」은 AD 400년경에 시작하여 20년 가까운 장기간에 걸쳐 집필된 것이다. 「삼위일체론」은 초대교회 교리적 발달의 정점이며,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자 전통 신학의 중심적 교리이고 하느님을 아는데 필요한 근본적 지식이라고 평가된다. 삼위일체 교리만큼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이면서도 해석하기 어려운 교리도 없다고 알려졌으며, 아우구스티누스 자신도 이 주제보다 오류를 만들 경우 더 위험하며, 탐구하기가 더 힘들며, 그 진리를 깨달을 때에 더 유익한 것은 없다고 하였다.¹⁾

「삼위일체론」의 전반부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느님 삼위일체(Trinity)의 심오한 교리를 성경에 기반하여 논구한다. 후반부는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인간 정신에서 삼위일체의 흔적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제1권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저술의 방향을 제시한 것과 일치한다.²⁾

「삼위일체론」의 후반부는 이른 바 심리학적 삼위일체론으로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독창적인 사상이다.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을 닮았으므로 삼위일체의 신비도 그 흔적을 인간의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는것이 기본 착상이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에 대한 분석과 삼위일체의 모형 찾기를 단계적으로 함께 추구해 나간다. 외적 인간과 내적 인간으로의 분별과, 지식과 지혜의 구분이 도입되어 심리적 구조로 정신의 4단계가 세워지고, 기억(Memory), 지성(Understanding), 의지(Will)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3위와 상응함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삼위일체 사상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저술의 위치를 일별한 후 그의 저서 「삼위일체론 De Trinitate」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이를 배경으로 본 논문의 주 관심사인 심리적 삼위일체 모형들의 단계별 논구를 인식론적 3요소인 주체, 객체, 행위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의 종교교육적 의의를 고찰함에 있어서 교수학습 이론의 삼위 모형들을 단계적으로 구성하였다. 「삼위일체론」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하느님의 기억과 이해와 사랑’이라는 삼위일체 모상(模像)의 종교교육적 의의에서 신앙측면을 논함으로서 본 논문의 결론에 이른다.

1) A. Augustinus, *De Trinitate*, I. 3. 5, 『삼위일체론』, 김종흡 옮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7), 33쪽.

2) 위의 책, I. 2. 4, 32쪽.

II. 삼위일체 사상의 쟁점과 역사적 발전과정

삼위일체란 성부(하느님)와 성자(예수)와 성령이 일체란 뜻으로써 이 세 위격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학자들 간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으며 이로 인한 이단과 정통의 분쟁이 있었다. 이런 역사적 발전 과정을 보면 (1) 초대 교부시대 동방교회에서 삼위일체론의 논쟁, (2) 서방교회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중심의 논의, (3) 중세의 아퀴나스 등의 삼위일체론과 칼빈 등 종교개혁에서 삼위일체 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을 고찰할 것이므로 이의 위치와 의의를 가늠하는 의미에서 여타 쟁점과 발전과정을 이 절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1. 동방교회에서 삼위일체론 발전과정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의 삼위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동방교회에서 첨예한 대립과 논쟁을 거치며 발전하였다. 동방교회에서 삼위의 관계를 처음으로 깊이 다룬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오리게네스(Origenes)로 그는 성부만이 출생이 없는 원천으로서 만물이 다 이로부터 나온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성자와 성령은 성부(하느님)로부터 나왔다고 본다. 즉 성부·성자·성령 간에 본질적 차이를 두었다.

리비아 출신 사벨리우스(Sabellius)는 AD 282년에 ‘일위삼체론(一位三體論)’을 주장했다. 하느님은 한 분뿐으로 성부·성자·성령은 양태적 차이만 있는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창조자적 아버지 양태로, 신약시대에는 구속주의 모습으로, 교회시대에는 성화를 위한 영의 모습으로 맡은 일에 따라 직무를 계승한다고 보았다. 하느님의 단일성만을 강조하고, 성부·성자·성령 삼위의 위격적 구분이 없고, 하나의 세 모습(양태)으로 본다.

아리우스(Arius)는 성부(하느님)만이 유일하고 영원한 실체라고 보았고, 성자(예수)는 탄생되었으며 성령도 피조물이라고 보았다. 일반 세속적 관점을 대변한다.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 받았는데 그것은 성자의 영원성과, 성자가 하느님과 동일실체임을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캅파도키아의 교부들인 바질(Basil the Great), 닛사의 그레고리(Gregory of Nyssa),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Gregory of Nazianzus)는 니케아 공의회 이후 더욱 격렬해진 각 계파 간의 삼위일체 논쟁을 잠재우고, 삼위일체의 정론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들의 큰 공헌 중 하나는 위격과 실체라는 개념의 정립이었다.

오리게네스와 아리우스파가 성부만 영원 실체의 하느님이시고, 성자와 성령은 피조물로 보는 일신론(一神論)인 반면 니케아공의회는 성자와 성령도 똑같이 영원성과 본질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신이 셋이나 되는 삼신론(三神論)의 반박이 나왔다. 이를 해결한 공이 캅파도키아 교부들이 제시한 위격의 개념이다. 즉 한 하느님 세 위격이다.³⁾ 성부와 성자

와 성령은 하나의 신성을 똑 같이 공유하지만, 세분의 인격체로 구분된다. 삼위일체가 세 위격이지만 삼신이 아니고 한 실체인 이유는 성부·성자·성령 모두가 동일한 근원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세 위격이 구분된다고 하여도 하느님 실체(Essence)에서는 하나인 단일 실체인데, 이 단일성은 한 위격이 다른 위격들과 연합하여도 더 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이 점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유한적 피조물들과 다른 무한성에서 나온다.

캄파도키아 교부들에 따르면 하나이신 하느님께서 각각의 위격 안에 계실 때,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신다. 즉, 세 위격 안에는 신성이 공통 내재하기 때문에 비록 위격적으로는 다르지만 실체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하다. 또 세 위격은 각각 자신 안에 한 동일실체 전부를 갖는다. 그리고 각 위격은 실체에 관한 다른 위격들을 완전히 포괄하고 관통한다. 그러나 각 위격은 한 동일실체 전부를 갖되, 다른 위격들과 공유할 수 없는 특성을 갖는다.⁴⁾

2. 서방교회의 삼위일체론.

이레네우스(Ireneanus),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us), 노바티아누스(Novatianus) 등이 초대 서방교회의 삼위일체론 사상을 어느 정도 논의 하였으나 동방교회처럼 체계적이지 못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영향을 준 중요한 신학자는 힐라리우스였다.

힐라리우스는 AD 358년경 삼위일체론을 저술하였다. 그는 특히 성자의 신성과 영원성을 강조하여 아리우스파들의 공격에 대항하였다. 그는 성부와 성자는 일체이되 한 위격이 아니며, 두 위격이되 두 신이 아니라고 하였다. 성부와 성자는 그 본질, 신성에 있어서 하나이기 때문에 두 신일 수 없으며, 공통적 본질을 갖추었기 때문에 신성에 차이는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아리우스 이단의 주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⁵⁾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삼위일체론』을 저술함에 있어서 동방교회 캄파도키아 교부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힐라리우스의 저술에서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본다. 그는 성부·성자·성령의 3자 관계를 위주로 논하기 보다는 하느님 자체의 깊은 이해에 초점을 두고 이로부터 논리적 사고의 전개로 삼위일체를 탐구했다는 점, 사랑의 연합을 통한 사회적 삼위일체론과 심리적 삼위일체론을 독창적으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캄파도키아 교부들을 훨씬 능가하는 삼위일체론을 창출하였다. 본 논문에서 상세히 고찰할 삼위일체의 인식론적 논구는 근대철학의 형이상학적 맥락에서도 중요하다.

3) J. N. D. Kelly, 『고대 기독교 교리사』, 김광식 역 (서울: 한글, 1991), 236쪽.

4) 서철원, 『신학서론』 (서울: 은혜문화사, 1997), 54-55쪽.

5) 차영배, 『개혁교의학』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9), 147-150쪽.

3. 종교개혁기의 삼위일체론.

중세의 삼위일체론은 중세 신학의 전반적 경향인 사변적 이성을 중시하게 되었다. 중세의 대표적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스콜라주의 철학적 주제로 삼위일체를 다루었다. 형이상학적 논제로 되면서 하느님의 본성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고 삼위 각각의 차이는 다루지 않게 되었다.⁶⁾

중세말기 종교를 개혁하는 운동에서 칼빈의 삼위일체론은 당연한 경향으로서 성경중심이고, 실천과 목회에 기반하게 되었다. 칼빈은 하느님의 그 본질은 알려질 수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다고 보았으며, 오직 그의 위격들을 통해서만 알려질 수 있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하느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격적 존재로 표현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칼빈의 삼위일체론은 위격들의 관계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각 위격들은 ‘스스로 하느님임’이며, 예를들어 사벨리우스가 위격은 신적인 본질의 한 양태에 불과하다고 한 주장은 배제된다.

칼빈의 주장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의 핵심을 이어받고 있다. 각 위격들이 모든 점에서 서로 동등하며, 각 위격이 고유한 속성을 가졌지만 또한 하느님의 본질에 속하는 모든 속성들을 다 소유하여 본질면에서 단일성이라고 하였다.⁷⁾ 따라서 하느님은 셋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성부·성자·성령의 세 위격을 떠나서 하느님을 이해하는 것은 참된 지식이 아니며 성경에 위배되는 망령되고 헛된 사상이다.⁸⁾

종교 개혁기에도 유니테리언을 비롯하여 삼위일체론에 관한 이단적 주장과 논쟁이 끊임없었지만, 기본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 삼위일체론의 정통성은 칼빈에게도 받아들여졌으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신학적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다.

Ⅲ. 아우구스티누스의 심리적 삼위일체론

1. 「삼위일체론」 내용 개괄

『삼위일체론』은 총 1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권에서 7권까지는 성경을 근거로 삼위일체를 제시하였고, 8권부터 14권은 논리적인 사고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방법을 다양하

6) 김재성, 『칼빈의 삼위일체론 그 형성과정의 독특성』, 『신학정론』 20-2 (합동신학대학 출판부, 2002년 6월), 134쪽.

7) 위 논문, 165쪽.

8)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tr.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1959), I X iii, 16.

게 동원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발상은 이 세상은 하느님의 피조물인 까닭에 자연과 인간에서 삼위일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하느님을 닮은 것은 인간의 마음이므로 마음속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 하였다. 그 결과 인식론적 관점에서 삼위일체 논리의 구체적 전개를 시도하여 그 이전의 동 서방 교회 교부들의 신학적 삼위일체론과는 전혀 다른 그 만의 독창적 철학체계가 구성되었다. 신학적 관점보다는 심리적 관점에서 정치한 분석이 돋보이며, 그의 삼위일체론이 교회 밖에서까지도 의의를 갖는 이유가 된다. 제15권은 요약과 결론으로서 1권부터 14권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하느님은 마음 위에 계시며, 하느님은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항상 찾아야하며, 삼위일체의 흔적을 피조물에게서 찾는 것이 무익하지 않다고 하여 「삼위일체론」 저술의 의의를 피력한다.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의 요약을 개괄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⁹⁾

제1권~제4권 : 성경을 근거로 하느님 삼위일체의 통일성과 동등성을 밝힌다. 보냄을 받은 이(성자와 성령)가 보내는 이(성부)보다 작은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삼위일체는 모든 일에서 동등하며, 불가분적으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제5권 : 성부와 성자의 본질이 다르다는 주장을 논박했다. 성경에 있는 하느님에 관한 언급이 그 본질에 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관계를 기술하는 점을 모르는 데서 오는 주장임을 증명한다.

제6권~제7권 : 하느님은 3중(三重)적 존재가 아니라 삼위일체임을 밝혔다. 성부 · 성자 · 성령 셋을 다 합해도 그 중 하나보다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삼위일체는 한 본질적 존재이며 세 위격인데, 이는 결코 셋의 독립된 능력과 지혜의 모음이 아니라 한 능력, 한 지혜이다.

제8권 : 삼위일체의 초 유한(有限) 논리가 제시된다. 성부가 성자보다 더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성부와 성자를 합해도 성부나 성자 또는 성령보다 크지 않다. 또는 성부 · 성자 · 성령 셋을 다 합해도 그 어느 한 분보다 크지 않다. 성경에서 하느님은 사랑이므로 사랑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사랑하는 주체, 사랑을 받는 대상, 그리고 사랑이 삼위일체이다.

제9권~제14권 : 하느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정신에서 삼위일체의 모형을 본다. 먼저 정신, 지식, 사랑이 서로 동등한 본질이며, 하나임을 보인다. 이어서 좀 더 정치한 분석을 통하여 기억, 이해력(Understanding), 의지(Will)의 삼위일체 모형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신체 감각 중 시각을 분석하여 하나의 모형을 얻었다. 이 모형에서 정신과정으로 초점을 옮겨서 외부의 사물을 볼 때 지각된 것이 마음속에서 하나로 합해지는 과정을 검토하면, 기억속에 있는 외부 물체의 형상, 의식의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하는 시상(視像), 이 둘을 결합시키는 의지인 의도(intentione)의 셋이 되어 또 다른 모형을 얻는다. 그러나 이 셋은

9) *De Trinitate*, XV. 3. 4-5, pp. 408-410.

인간의 외면에서 감각에 의해 도입되어 불완전 하다는 점이 규명된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서 모형을 찾기 위하여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였고, 지식체계에서 삼위일체의 모형을 찾았지만 하느님의 형상에서 얻은 것이라고는 하지 못했다. 13권에서 그리스도 신앙 속에서 하느님의 형상을 논한다. 14권에서 마침내 하느님의 은사로 받은 진정한 지혜를 논하게 된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하느님의 형상에서 삼위일체의 모범적 모형을 찾게 된다. 그것은 영원한 것(하느님)을 묵상함으로써 얻어지는 지혜에 있다.

『삼위일체』의 이해를 위한 8권부터 14권까지의 여러 모형은 14권 4장의 요약에서 정점에 이른다. 하느님을 닮은 최종적인 완벽한 형상은 인간의 정신이 ‘자신’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전자는 어리석음으로 떨어지게 하고 후자는 지혜로서 행복에 이르게 한다.¹⁰⁾

2. 아우구스티누스의 심리 구조와 삼위일체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탓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인간관은 물질적인 몸과 비물질적인 영(Soul) 또는 정신(Mind)으로 구분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의 영 또는 정신은 자신을 의식하는(Self-awareness) 능력이 있으며, 나아가 위로는 하느님을 알 수 있고, 아래로는 감각을 통해 물질세계에 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의 타락과 구원에 관한 신학적 이론 역시 이 심리적 구조에 바탕하고 있다. 인간의 마음이 가변적인 물질세계에 대한 탐욕으로 내려간 것이 타락이고, 그 마음이 높고 영원한 하느님을 향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 보았다.

삼위일체의 논의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심리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위계를 부여하였다.¹¹⁾ 물질 세계를 향한 인간의 정신을 ‘외적 인간’, 하느님을 향한 정신을 ‘내적 인간’이라 하였다. ‘외적 인간’은 다시 감각기능과 감각적 정보의 기억 둘로 나누어 감각기능을 최하위에, 그리고 형상의 기억을 보다 위에 두었다. 물질에 가까울수록 낮게 보기 때문이다. ‘내적 인간’은 지적 활동(understanding)에 해당하는 것으로 역시 둘로 나누어 가변적 사물에 관한 것은 지식(scientia)이라 하였고, 영원 불변한 진리를 향한 것을 지혜(sapientia)라 하여 최상위에 두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인식 심리는 물질 세계에 직접 연결되는 감각을 빼면 기억(sense memory, imagination), 지식(scientia), 지혜(sapientia)로 나뉜다. 이러한 계층적 심리구조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인간적 모형을 찾는 데 적용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 하느님에서 성부·성자·성령 3위격을 인식론적 3요소인 주체, 객체, 행위 또는 관찰자, 관찰대상, 관찰행위에 상응시켰다. 제8권에서 사랑에는 삼

10) A. Augustinus, *De Trinitate*,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Notes, E. Hill, O.P. *The Trinity* (New City Press, Hyde Park, New York, 2002), p. 384.

11) *Ibid.*, p. 261.

위일체의 형상처럼 세가지 면 즉,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이, 사랑이 있음을 주목하였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과 사랑, 이 셋이 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것, 이 둘을 연결하는 또는 연결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고 무엇인가? 외면적이며 육적인 사랑도 이렇지만, 우리는 더 순결하고 분명한 것을 얻기 위해서 육체를 밟고 마음으로 올라가자.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인가? 여기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것과 사랑, 이 셋이 있다.

다음은 사람에게 허락되는 대로,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서 위에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하겠다.¹²⁾

처음에는 하느님은 사랑이라는 성경 내용에서 사랑의 3요소를 삼위일체의 유비로 삼았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성서 신학적 태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로부터 인간의 정신적 측면으로 분석의 방향을 선회함으로써 신학에서 철학과 심리학으로 전환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중세를 넘어 현대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삼위일체 사상이 된 소이이다. 인식의 3요소인 주체, 객체, 행위 3자는 삼위일체(Trinity)의 틀이 되고, 이 틀에 맞는 4단계의 정신적 모형을 탐색한 것이다. 이것은 그의 인간 심리구조인 외적인간과 내적인간의 위계질서에 따른 것이다

제1단계 : 외적 인간의 감각적 인식에 관한 3중 구조이다. 주체, 객체, 인식활동 3자가 서로 달라서 분리된 경우로서 ‘A라는 생물학자가 나무를 본다’와 같이 주체(A과학자), 객체(나무), 본다(빛)가 본질적으로나 형상에서나 전혀 다른 경우이다.

제2단계 : 외적 인간의 기억 속에서 얻어지는 3중 구조이다. 위에서 객체인 나무를 대신하여 그 나무에 대한 기억이 객체 역할을 한다.

제3단계 : 내적 인간의 지식에서 찾는 3중 구조로서 자기의 정신 자체에 관한 기억, 이해력, 의지(사랑)의 3중 구조이다.

제4단계 : 내적 인간의 지혜에서 얻어지는 3중 구조이다. 하느님에 관한 기억, 이해력, 사랑의 구조이다. 하느님 삼위일체를 닮은 최상위 모형이다

삼위일체는 셋이 완전히 겹치며 또한 구분이 되는 것이므로 일상적 유한논리를 초월한 것이다. 삼위일체 내의 어느 두 분을 합해도 다른 한분보다 크지 않으며, 세분을 합해도 어느 한 분보다 크지 않다고 한다. 이를 삼위일체의 초 유한성이라 부르겠다. 이 초 유한성 논리는 동방 교회의 캅파도키아 교부들도 그 핵심을 이해했으며 아우구스티누스가 명료하게 완성시켰다. 이 초 유한성을 아리우스파 등 이단들이 오해하였던 부분으로 삼위일체 사상의 핵심이다.

따라서 두 분을 합하더라도 한 분씩 볼 때보다 더 위대하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성령도 동등하게 참으로 존재하시므로, 성부와 성자를 합하더라도 성령보다 더 위대하신 것이 아니다. 성부와 성

12) *De Trinitate*, VIII. 10. 14., p. 251.

자가 성령보다 더 참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성부와 성령을 합해도 성자보다 더 위대하신 것이 아니다. 그들이 참으로 더 존재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성자와 성령을 합하더라도 성부 한 분과 똑같이 위대하시다. 성자와 성령도 성부와 똑같이 참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자체도 그 안에 있는 각 위격과 똑같이 위대하시다. 진리 자체가 위대성인 곳에서는, 더 참인 것이 아니면 더 위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본질적 존재라는 관점에서는, 참인 것과 존재하는 것이 똑같으며 존재하는 것과 위대한 것이 똑같으며, 따라서 위대한 것과 참인 것은 똑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기서는 동등하게 참인 것은 반드시 또한 동등하게 위대하다.¹³⁾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 삼위일체의 가장 가까운 흔적을 찾는 과정에서 각 단계별 모형을 인간의 마음에서 찾아 이 초 유한성에 비교하여, 그 불완전성을 보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작업을 한다. 최종적으로는 이 초 유한성에 영원불변성을 참된 삼위일체의 조건으로 추가한다.

3. 외적 인간에서 삼위일체의 흔적들과 그들의 불완전성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적 구조에서 삼위일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독창적으로 제시한 심리적 삼위일체론이다.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의 완전한 모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비취진 삼위일체의 흔적 역시 불완전하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심리적 구조를 단계적으로 파악하고, 각 단계별로 삼위일체의 모형을 찾고 유사성과 불완전성을 논한다.

외적 인간에서 삼위일체의 흔적은 5감 중에서 시각을 대표적 예로 들어 분석을 진행하며, 외적인 사물에서 먼저 분석을 시작 하는 이유는 “이것은 분명하지 않더라도, 알아보기가 더 쉬울지 모른다.… 정신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연구하기 쉽고 친근하다.… 내면적이며 정신적인 일들을 더 잘 분별해서 더 쉽게 알리려면 외면적이며 물질적인 것에서 유사한 예를 얻어와야 한다”¹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1단계에 상응하는 예로 시각에 관하여 보이는 물체(객체), 보는 사람의 시각(주체)에 새겨지는 형상과 이 둘을 결합하는 의지 또는 마음의 주의력을 들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본질이 전혀 다른 인식 요소로 일치점이 없이 단지 우연히 결합되었을 뿐이므로 삼위일체와는 거리가 멀다.¹⁵⁾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셋이 서로 일치할 수 있는 영역 즉 인간의 마음에서 상응하는 요소를 찾았다. “외부 물체의 형상과 감각기관이 영향을 받아서 생긴 형상을 이성

13) 위의 책, VIII. 1. 2., p. 233.

14) 위의 책, XI. 1., pp. 294-295.

15) 위의 책, XI. 2., pp. 295-297.

이 구별해서 후자를 시상(視像)이라고 한다.¹⁶⁾ 외부에 있는 물체의 겉모양을 보고 그 물체를 제거한 후에도 그 형상이 기억 안에 남아 있고, 의지는 다시 그것을 응시해서 내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외부에 있는 물체에서 감각 기관이 영향을 받는 것과 같다. 그래서 기억된 형상과 내면적 시상과 이 둘을 연결하는 의지와 삼위일체가 생긴다.

감각된 물체와 감각 기관에 있었던 삼위일체보다 더 내면적이면서도 그것을 생각해서 얻는 다른 삼위일체가 있다. 이 새로운 삼위일체에서는 몸의 감각 기관이 물체에서 정보를 받지 않고 마음의 눈이 기억에서 정보를 받는다. 우리가 밖의 물체에서 감각한 그 외형이 기억 안에 있기 때문이다.¹⁷⁾

이 셋은 본질의 차이가 없다. 기억과 마음의 눈이 기억된 것에서 영향을 받아 얻는 내면적 시상이 각각 외부 물체(객체)와 감각 기관(주체)을 대신하여 정신세계 속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의지는 회상함으로써 마음의 눈을 기억으로 돌아가게 해서, 기억에 내포된 것의 영향으로 같은 시상을 생각하게 한다.

인식의 관점에서 보면 사물의 관찰에서 인식의 3요소인 주체, 객체, 행위가 기억을 통해서 정신에 투영된 것이다. 기억된 형상(객체), 시상(주체), 의지의 세 요소는 모두 한 사람의 정신활동이란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 이 삼위는 밖으로부터 지각한 물체로부터 마음속에 도입된 것이므로 외적 인간에 속하지만, 내부에서 완성되었고 마음 자체의 본성을 벗어난 점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하느님의 삼위일체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그러나 이 회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삼위는 수효가 심히 많고 끊임없이 변한다. 한 삼위일체가 사라지고 다른 것이 생겨서 그 수가 계속 증가한다. 이는 영원하고 유일한 하느님 삼위일체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관찰에서 일어나는 삼위나 회상에서 나타나는 삼위는 외적 인간에서 하느님의 삼위일체 흔적을 찾는 것인데, 불완전함이 들어났으므로 내적 인간에서 좀 더 완전한 흔적을 찾도록 방향을 선회 하였다.

4. 내적 인간에서 삼위일체 모형

내적 인간의 정신활동 중 무상한 사물에 대한 합리적 인식은 지식에 속하며 영원한 사물에 대한 정신적 인식은 지혜에 속한다. 따라서 내적 인간의 마음에서 삼위일체를 찾을 때 지식의 수준에서 먼저 찾아보고, 그것 역시 삼위일체의 진정한 모형이 못되면 더 높은 수준인 지혜에서 찾도록 올라간다.

16) 위의 책, XI. 3.6., p. 300.

17) 위의 책, XI. 7. 11., p. 306.

그러므로 나는 앞에서 외면적 인간에게서 삼위일체를 구한 것과 같이, 여기서는 이를테면 한 걸음씩 올라감으로써 내면적 인간에게서 그 지식과 지혜에서 나뉘대로의 삼위일체를 구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 낮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며 발달시킴으로써 하느님의 삼위일체를 정관할 수 있게 하려고 했다.¹⁸⁾

무상한 사물들로 향하게 된 부분 즉 지식에서는 삼위가 발견될 수 있더라도 그것은 하느님의 형상일 수는 없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잘못된 삼위의 비유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였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의견은 내게 그럴듯하지 못하다. 세 위격으로 된 하느님의 형상의 삼위일체가 인간성에서, 즉 남자와 여자의 결혼과 그 자식에서 완성된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들은 믿는다. 남자는 이를테면 성부의 위격을 암시하며, 성부에게서 나와서 난 것은 성자의 위격을 암시하며, 성령에 해당하는 셋째 위격은 여자라고 한다. 즉 남자에게서 나와서 그 아들도 아니요 딸도 아닌 여자(창 2:22), 그러나 잉태하여 자식을 낳은 여자라고 한다. 성령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께로서 나오신다”고 했으나(요 15:26), 성령은 성부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⁹⁾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예가 잘못 되었음을 분명히 하였고 이 예처럼 사람에 관한 지식에서나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에서는 진정한 삼위일체의 모형을 찾을 수 없음을 밝혔다. 그리스도 믿음에 관련되어 인간의 내면에 형성된 삼위일체마저 아직 영원불변한 하느님 형상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는 시간적으로 변하는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영원불변한 하느님을 정관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 믿음을 품고 이 생활을 하는 신자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들이 기억에 보존되며 회상으로 검토되며 의지로 수락될 때에 한 독특한 삼위일체가 형성된다. 그러나 하느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후에 논하려는 하느님의 형상은 아직 그 삼위일체에는 없다. 어디 있다는 것이 지적될 때에, 더 분명하게 될 것이며, 독자는 다음 권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²⁰⁾

아우구스티누스 삼위일체 흔적의 정점은 오직 진정한 지혜를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는 사람의 정신적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형상을 발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지혜 속에 있는 삼위일체는 마음이 하느님을 기억하며, 이해하며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하느님의 형상이다.

마음의 이 삼위일체는 마음이 자체를 이해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형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은 또한 창조주를 기억하며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이렇

18) 위의 책, XIII. 20. 26., p. 371.

19) 위의 책, XII. 5. 5., p. 318.

20) 위의 책, p. 372.

게 함으로써 마음 자체가 지혜롭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비록 자체를 기억하며 이해하며 사랑할지라도 그것은 어리석다. 그러므로 마음은 자체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느님을 기억하며 이해하며 사랑해야 한다.²¹⁾

여기서 일반 인식론적 관점과 종교교육적 관점의 핵심적인 차이를 볼 수 있다. 마음이 자체를 기억하며, 이해하며 사랑할지라도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오직 하느님을 기억하며 이해하며 사랑해야 지혜롭다는 점이다.

IV. 삼위일체론의 종교교육적 의의

1. 삼위일체의 하위 2단계 모형과 교수학습 이론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의 모형들을 단계별로 탐색하여 최종적으로 하느님의 삼위일체에 접근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 방식은 종교교육적 관점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먼저 그의 하위 2단계의 모형들은 일반적인 교수학습 이론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간단히 살펴본다.

그의 삼위일체 모형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외적 사물의 시각적 관찰에서 주체, 객체(대상), 행위(또는 의지)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며, 하나의 목적을 수행하지만 셋이 하나로 된 것은 아니다. 교수학습 이론에서 외적 삼위의 예는 교사, 학생, 내용(학습)이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성부가 성자에게 성령(사랑)을 준다는 것과 상응한다. 초기 동방교회의 이단들 중 아리우스파는 하느님의 삼위일체를 교사 학생 내용의 삼위처럼 잘못 이해하였다. 반면에 카파도키아 교부를 비롯하여 정통 교회에서는 성부·성자·성령의 하나됨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의 초 유한성을 특히 강조하였고, 삼위 분리적 모형을 가장 낮은 단계의 이해로 보았다. 교사 학생 학습내용의 삼자는 교수학습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만난다는 점에서 인식론적 삼자인 주체, 객체, 행위와 형식상 일치한다. 그러므로 일반적 교수학습 이론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의의가 있으나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 관점이나 종교교육적 관점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한다.

교수 학습 이론의 다음 단계 모형은 학습자 정신 속으로 학습 내용이 도입된 상태에서 찾을 수 있다. 학습 내용의 기억과 이 내용의 이해 그리고 기억과 이해를 연결하는 학습 동기 3자가 하나의 삼위를 이룬다. 여기서 학습내용의 기억과 이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해’는 학습내용을 배우는 즉시 이해하는 것보다 마음이 기억의 내용을 회상하여

21) 위의 책, XIV. 12. 15. p. 391.

복습, 분석, 정리, 연구 등의 지적 작업을 하는 지성적 활동(Understanding)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다. 학습 내용을 기억하고 재 회상하여 강화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사랑’하는 의지가 필수적이다. ‘사랑’은 좋아함 뿐만 아니라 시험 합격 같은 필요성 또는 중요성 등으로 기억과 이해를 연결하려는 학습동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의 기억, 이해, 의지의 정신적 삼위일체 모형은 일반적 교수학습이론에서도 학습 내용의 기억, 이해, 동기라는 제2단계의 삼위 모형을 이룬다.

2. 삼위일체의 제3단계 모형과 종교교육의 형식적 측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심리적 삼위일체 이론은 기억 이해 의지 삼위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외적 인간과 내적 인간으로 단계적으로 구분하였다. 내적 인간의 단계는 다시 지식과 지혜의 순서로 정점(頂点)을 향한다. 교수학습이론의 삼위일체 모형은 외적 인간의 감각적 정보에도 적용되고, 내적인간의 마음에 관한 지식에도 적용된다. 앞 절에서 감각적 학습내용을 전제로 하였고, 여기서는 학습자의 마음 자체에 관한 지식의 삼위에 대해서 고찰 한다.

교수학습 이론에서 2단계와 3단계의 차이는 기억 이해 동기(또는 의지)란 삼위 모형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학습내용에 있기 때문에 정밀한 구분을 요한다. 2단계는 감각적 학습내용이므로 외적이고 객관적 정보인 반면 3단계는 학습자 자신의 마음에 관한 것이므로 내적이고 주관적 내용이다. 외적 환경에서 들어온 내용과 내적 주관에서 발생한 내용이 상호 구분이 불명확한 미묘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내외 구분이 안 되는 특수한 상황보다는 내와 외가 분명히 구분되는 일반적 경우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제3단계는 외적 환경에서 얻어진 지식이 아닌 순수한 자신의 내적 정신에 관한 것으로 국한하는 것이다. 여기서 논하게 될 아우구스티누스의 ‘아는 마음 그 자체’가 제 3단계의 관심 대상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음이 그 자체를 아는데, 확실히 자체가 마음인 것을 알고 있고, 한 전체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보았다.²²⁾ 마음이 자체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것들로 기억과 이해력과 의지는 3개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며, 3개의 실체(Substance)가 아니라 한 실체로 여겼다. 따라서 이 셋은 한 마음과 한 본질적 존재인 점에서 하나이며 각각이 전체로서 서로 동등하며 동시에 셋 전체와 동등하다.

생명과 마음과 실체라고 부르는 기억은 그 자체에 관해서 그렇게 부르며 기억이라는 이름은 어떤 것과의 관계로 부르는 것이다. 이해력과 의지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해야 한다. 어떤 것과의 관계로 이해력이라고 하며 의지라고 하지만, 그 자체에 관해서는 둘이 다 생명이며 마음이며 본질

22) 위의 책, X. 4. 6, p. 280.

적 존재이다.²³⁾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의 마음에서 기억과 이해력과 의지는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상대적 관계성에서만 셋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성부·성자·성령 세 위격의 관계와 유비된다 고 보았다.

교수학습이론의 관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단계적 삼위일체 모형들은 앞 절에서 외적 인간에서 찾은 모형 둘은 낮은 단계에 속한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내적 인간의 자체 지식에 관한 것으로서 교수학습이론에 적용한다면 학습내용이 기억 이해 의지(동기)에 관한 것이 된다. 이 상황의 미묘한 점은 ‘기억 이해(지성) 의지(동기)’에 관한 기억 이해 의지를 다루는 자기 귀환과 자기 성찰의 순환고리란 점이다.

종교교육의 형식적 관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제3단계 삼위일체 모형은 통합적 방식을 시사하는 의의가 있다. 종교교육을 학습하는 학습자의 심리구조에서 기억 이해 의지가 통합된 하나의 실체이며 하나의 본질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들의 기능에 관한 상대적 관계성에서는 셋이지만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교교육 이전의 일반인의 교양교육으로서 윤리교육에서는 자기 성찰이 가장 높은 도덕적 수준이라 하겠다. 이제 자기 성찰의 과정에서 기억 이해 의지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면서 동시에 분석적으로 관계성을 탐구하는 교과과정을 구성하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모형에 따른 교과과정이 성립될 수 있다. 이러한 교과과정의 구성은 형식적 측면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이론의 적용이 된다. 그러나, 내용적 측면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 삼위일체론의 핵심이 빠진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반(反) 아우구스티누스적 종교교육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 이유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시한 최상위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전 단계에 멈추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다음 절에서 논하고, 형식과 내용 공히 아우구스티누스 삼위일체론의 정신을 적용하는 종교교육을 추구하도록 고찰하겠다.

제 3단계 모형에서 나타나는 자기 성찰은 일반적 윤리학의 관점에서는 최상위의 단계라 할 수 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학적 관점에서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보았다. 이 점이 종교교육의 관점에서 핵심적 의의가 된다.

내적인간으로서 자기 자체에 대한 순환고리적 특성을 어떻게 뛰어 넘을 것인가에 대한 힌트는 그의 다른 저서 『참된 종교』에 제시되고 있다.

바깥으로 나가 방황하지 말고, 당신 자신 안으로 돌아가시오. 진리는 사람 내면 깊은 곳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의 본성이 가변적임을 발견하면 당신 자신도 초월하시오. 하지만 자신을 초월할 때에 성찰하는 당신의 영혼도 초월한다는 것을 기억하시오²⁴⁾

23) 위의 책, X. 11. 18, p. 291.

24) 아우구스티누스, 성염 역, 『참된 종교』, X X X IX, 72 (왜관: 분도출판사, 2011), 167쪽.

여기서 일반적 교수학습에서 종교교육적 모티브가 제시되고 있다. 정신 자체도 가변적이고 무상한 것이어서 이 단계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영원불변한 것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삼위일체의 지혜를 추구하는 도약이 요청된다.

3. 하느님의 삼위일체와 종교교육의 내용

지혜는 하느님에 속한 일에 관한 것이며, 지식은 사람에 속한 일에 관한 것이라고 구별하며, 단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를 다 인정한다. 육화 하신 말씀이 인간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에서 겪으신 일은 지식에 속하지만, 말씀 자체는 시간과 공간이 없으므로 성부와 함께 동등하게 영원하며 무소부재하고 이에 관한 일은 지혜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식이시며 또한 우리의 지혜이시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인간 심리구조에 따른 그리스도관을 제시하였다.²⁵⁾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의 영원불변성을 진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이 비록 지혜라 하지만 시간적으로 가변적인 믿음을 품으며 정관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형상이라고 볼 만한 삼위일체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진정한 삼위일체에 도달할 가능성을 인간 영혼의 본성이 영원불멸한 점에서 찾았다. 하느님의 형상은 영혼의 불멸성에 영원하도록 박혀졌기 때문에 사람의 지성적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형상을 찾아야 한다.²⁶⁾ 영혼은 지성을 이용해서 하느님을 이해하며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이다.

반면 영혼의 본성은 위대한 것이지만, 최고의 존재(하느님)가 아니기 때문에 부패할 수 있다. 그러나 부패할 수 있음에도 최고의 존재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위대한 존재이다. 하느님은 마음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은 그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 분께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하느님의 형상에서 삼위일체를 찾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하느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 『삼위일체론』의 결론은 마음은 하느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므로 하느님을 기억하며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하느님의 도움을 받는 길이다. 마음이 자기 자체를 기억 이해 사랑하는 것은 가변적인 것으로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마음은 하느님을 기억하며 이해하며 사랑함으로써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느님에게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그래서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근본적 계명이 있는 것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였다.²⁷⁾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은 단순한 믿음의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25) *De Trinitate*, XIII. 19. 24, pp. 368-370.

26) 위의 책, XIV. 4. 6, p. 379.

27) 위의 책, XIV. 14. 18, pp. 393-394.

지혜의 의의를 밝힘으로써 신앙의 근본 원리를 제시하였다. 『삼위일체론』의 전반부는 성경의 이해를 깊게 했다는 점에서 신학적 의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캅파도키아 교부들과 같은 선상에 있다. 그러나 후반부의 심리적 논의는 인간의 심리적 구조와 인식체계에 관한 심층적 분석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의 창의성을 보여준 물론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전으로서의 중요성을 갖는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제4단계의 삼위일체 모형을 종교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편성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종교교육 교재로서 학습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의 교육은 지식과 지성에 집중된 내용이므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성적 접근과 매우 친화적이기 때문이다.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의 교육을 제시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단계별 삼위일체론은 현대인의 합리적 경향성과 잘 부합된다. 따라서 종교교육의 내용에 삼위일체론을 중심적 주제로 포함시켜야 한다.

V. 결 론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의 저술이 끝날 무렵에 『삼위일체』를 집필하기 시작했다. 그의 삼위일체론의 교리는 『고백록』에서도 이미 일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가 독창적인 ‘심리적 삼위일체’ 사상을 창안하기 전에 힐라리우스 등 선배 신학자들의 영향으로 ‘존재론적 삼위일체’ 사상을 갖고 있었음을 『고백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²⁸⁾ 그는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느님의 삼위일체를 반영하는 삼중구조가 있다고 보았으며,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재고 헤아리고 달아서 처리하셨습니다’(지혜서 11,12)에서 구체적으로 답을 찾았다. 즉 척도(mensura), 수(Numerus), 무게(pondus)가 각각 성부·성자·성령에 유비되는 삼중구조라 파악했다. 그가 『고백록』에서 주목한 ‘존재론적 삼중구조’는 비록 부자연스럽고 설득력이 없지만 『삼위일체론』에서 심리적 삼위일체의 모형을 찾는 예비작업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반적인 피조물에서 하느님 삼위일체의 흔적을 찾기보다는 하느님의 형상으로 된 인간 특히 그의 마음에서 더 확실한 모상(模像)을 찾을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 단초이기 때문이다. 이 작업이 『삼위일체론』의 후반부에서 장기간에 걸쳐 수행된 것이며, 인간의 마음에서 가장 확실하고 높은 단계의 삼위일체 흔적을 찾게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심리적 삼위일체론은 마음의 구조와 그 기능을 분석하고 탐구하기 때문에 신학에서의 중요성은 물론 인식론적 관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인식의 3요소인

28) 정승익, 『『고백록』 13,11,12에 나타난 ‘심리학적 삼위일체론’에 관하여』, 『누리와 말씀』 제21호, 인천 카톨릭대학교, 2007.6, 3-7쪽.

주체 객체 행위의 3중 구조를 성부 · 성자 · 성령의 삼위일체의 틀로 보고 인간의 심리적 구조에 따라 모형을 찾은 것이 그의 독창성이다. 최상위 단계로 인간 정신에서 기억 이해 의지의 3중 구조에 하느님을 향한 지혜를 적용함으로써 성경의 신학적 삼위일체의 형상을 심리적 삼위일체에서 찾았다. 신학에서 심리학으로의 전이는 그 이전의 수많은 삼위일체 논쟁에서는 없었던 발상의 대전환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심리적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의 이성적 접근을 제시하는 점에서 신학적 측면에서 위대한 저술이었던 바, 이점은 지식 중심의 현대사회에서 더욱 그 의의가 깊다. 특히 한국의 선교나 사목 또는 목회 활동에서 영성과 감성에 강조를 둔 신앙은 이성과 지식 중심 사회에서 점차 호소력이 감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이성과 합리성으로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는 신앙이 과학적 현대문명과 조화되면서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심리적 삼위일체론은 이런 점에서 기독교 종교교육의 핵심 이론서로 여전히 가치가 있다.

그의 심리적 삼위일체론은 인식론적 3중 구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이 아닌 인식론의 형이상학적 맥락이나 현상학적 관점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는 감각적 지각에서 정신의 지향이 감각과 사물을 하나로 통합하여 하나의 감각으로 완성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현대적 현상학을 연상시키는 지향성에 관한 이론의 기초라 하겠다. 그의 인식의 확실성 추구와 회의론에 대한 비판은 근대 철학의 출발이라고 여겨지는 데카르트의 'cogito ergo sum'을 연상시킨다. 본 논문에서 고찰한 교수 학습 이론상의 3중 구조와 종교교육적 의의도 형이상학적 맥락이나 현상학적 관점과 결합하여 더 깊게 천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병태. 「아우구스티누스의 평화에 대한 신학적 고찰」. 평택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 김유준.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 『연세학술논집』. 제43집. 연세대학교 대학원 총학 생회. 2006.
- 김재성. 「칼빈의 삼위일체론 그 형성과정의 독특성」. 『신학정론』. 20-2 (2002년 6월).
- 배병우.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에 나타난 ‘지식’과 ‘지혜’에 관한 연구」. 수원카톨릭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서철원. 『신학서론』. 서울: 은혜문화사. 1997.
- 성 염. 「아우구스티누스의 감각적 지각론에서 지향의 역할」.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6집. 한국현상학회. 1992.
- 양명수. 『어거스틴의 인식론』. 서울: 한들 출판사. 1999.
- 이석우. 『아우구스티누스』. 서울: 민음사. 1995.
- _____. 「어거스틴의 교육사상」. 『서양고대사연구』. 3.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1995.
- 정승익. 「고백록 13, 11, 12에 나타난 ‘심리학적 삼위일체론’에 관하여」. 『누리와 말씀』. 제 21호. 인천카톨릭대학교. 2007.6.
- 정현숙.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지론’과 ‘고백록’을 통해서본 신앙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26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2.
- _____.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육사상과 조명설의 종교교육적 의의」. 『종교교육학연구』. 제 30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6.
- _____.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과 영원성」. 『종교교육학연구』. 제32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2.
- _____. 「아우구스티누스 행복론의 종교교육적 의의」. 『종교교육학연구』. 제35권. 한국종교 교육학회. 2011.2.
- 주영흠. 『아우구스티누스 교육사상』. 서울: 학지사. 2007.
- 차영배. 『개혁교의학』.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9.
- Augustinus, A. *De Trinitate*. 김종흡 옮김. 『삼위일체론』.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7.
- _____. *De Trinitate*.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notes, E. Hill, O.P. New City Pteess. Hyde Park, New York. 2002.
- _____. *Confessionum*. 『고백록』. 최민순 옮김.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93.
- _____. *Confessionum*. 『고백록』. 김광채 옮김. 서울: 기독교문 서선교회. 2005.
- _____. *De Civitate Dei*. 『신국론』. 조호연 · 김종흡 옮김. 서울: 현대지성사. 2002.
- _____. *De Doctrina Christiana*. 『기독교교육론』. 김종흡 옮김.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 스트. 1994.
- _____. *De Doctrina Christiana*. 『그리스도교 교양』. 성염 역주. 왜관: 분도출판사. 1989.
- _____. *De libero Arbitrio*. 『자유지론』. 성염 역주. 왜관: 분도출판사. 1998.

- _____. *De Magistro*, 『교사론』, 어거스틴 저작집 제2권, 김영국 역, 서울: 소망사, 1983.
- _____. *De Vera Religione*, 『참된 종교』, 성염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11.
- _____. *De Predestinationes Sanctorum*, 『아우구스티누스의 예정론』, 박일민 옮김, 서울: 야훼의말씀, 2010.
- Babcock, W. S. *The Ethics of St. Augustine*,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학』, 문시영 옮김, 서울: 서광사, 1998.
-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tr.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1959.
- Kelly, J. N. D. 『고대 기독교 교리사』, 김광식 역, 서울: 한글, 1991.

원고접수 : 2012년 1월 13일 1차 심사: 1월 25일 게재승인일: 2월 13일

연구자소개 : 정현숙

① 전공 : 교육학 / 소속 : 수원대학교 교양교직과 교수

② 관심영역 : 영성교육, 종교와 심리, 성인들의 영성

③ 주요논저 :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에서 ‘종교’ 원리의 원천』,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과 상담』,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론’과 ‘고백록’을 통해서본 신앙교육』,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육사상과조명설의 종교교육학적 의의』,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의 종교교육적 의의』.

④ E-mail : hschung@suwon.ac.kr

Abstract

Augustine's Psychological Trinity and Its Significance in Religious Education

Chung, Hyunsook

Suwon University

The contributions of Cappadocia Fathers and heretics-debates in Councils of Nicaea in the early period of formation of the thoughts on Trinity were reviewed to get a perspective on Augustine's book 「Trinity」 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trinity doctrine.

The whole contents of the book 「Trinity」 were summarized and the basic direction of Augustine to search for the image of Trinity in human psychological structure was reviewed. He combined the epistemological three elements, the Subject, the Object, and the Action with the psychological structures to form 4 stages of development in the psychological models of Trinity.

The lower two stages were found in the sensation triplet and the mental images of the sensational triplet of the 'outer man'. The third stage was found in the knowledge (scientia) of the inner man. The highest stage of the Trinity image was reached by the Wisdom (sapientia) of God in the mental triplet of Memory, Understanding and Will.

In this article the mental trinity models in terms of the epistemological triplet were considered, and they were applied specifically to the Teaching-Learning theory. Further consideration of the highest psychological trinity image in human was performed to reveal its significance with respect to religious education and Christian faith education.

Key words : Trinity, Father Son Spirit, Memory, Understanding, Will, Religious Education